

아프리카 여행소설

맙소사, 나를 찾다니!

전 상 희

숨은 책방 (breathe & books) · 거진, 강원도

1 장

바오밥나무

— 외모에 관한 대화

마다가스카르 초원. 해 질 녘, 거꾸로 선 것 같은 나무 앞에서.



아이가 먼저 말했다.

“이상하게 생겼다.”

바오밥이 천천히 대답했다.

“나도 처음엔 그런 말 들었지.”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어?”

“3000 년쯤 됐나. 기억이 잘 안 나.”

아이가 나무껍질을 손으로 짚었다.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물이야. 10 만 리터쯤 들어있거든.

네가 못생겼다고 부른 이 배가

사막에서 수백 마리를 먹여 살려.”

나는 아이 옆에 서서 물었다.

“그럼 예쁜 게 뭔가요?”

그 말을 뱉고 나서야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바오밥이 잠시 침묵했다.

“오래 버티는 거 아닐까.

나는 예쁘려고 자란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자랐어.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고.”

아이가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럼 나도 나중에 울통불통해져도 돼?”

바오밥이 바람 소리로 웃었다.

“그게 네가 살았다는 증거가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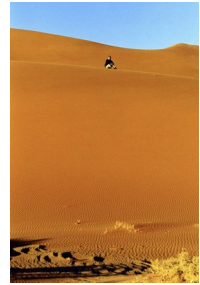
나는 그 말을 수첩에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아도 잊을 것 같지 않아서.

나미브 사막

— 자연에 관한 대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 새벽, 안개가 밀려오는 모래 위에서 웰위치아를 만났다.



아이가 물었다.

“이 풀은 왜 여기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깐 다른 곳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어떤 마당,

어떤 골목, 어떤 계절.

그때도 나는 똑같은 말투로

누군가에게 물었던 것 같았다.

웰위치아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처음엔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안개가 왔어.”

“안개로 살 수 있어?”

“2000 년째 살고 있잖아.”

나는 모래에 쪼그려 앉아 물었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요?”

“없는 게 아니야.

네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안개는 매일 왔어.

나는 그냥 기다렸어.”

아이가 사막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살고 있는 거야?”

웰워치아가 앞사귀를 펼쳤다.

“사막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막을 모르는 거야.

가장 오래된 것들이 여기 있어.

보이지 않을수록 오래된 거야.”

안개가 우리 발목까지 차올랐다.

아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내 손보다 작았지만

쥐는 힘은 이상하게 낮익었다.

나는 안개가 물이라는 걸

그때 처음 피부로 알았다.

오카방고 델타

— 연결과 생명에 관한 대화

바다로 가지 못하고 사막에 스미는 강. 갈대 사이로 흐르는 물길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말을 걸었다.



아이가 물었다.

“이 강은 어디로 가?”

물고기가 물 위로 잠깐 올랐다.

“어디도 안 가.”

“강인데 바다가 없어?”

“응. 나는 사막으로 스며들어.”

나는 그게 슬픈 일인지 물었다.

“목적지에 못 가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천천히 대답했다.

“목적지가 없으면 도착 못 한다는 말도 없지.

나는 흐르다가 스며들어.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살아.

코끼리도, 새도, 저 갈대도.”

아이가 강물에 손을 담갔다.

“그럼 이 물이 코끼리가 되는 거야?”

“잠깐은.”

“그리고?”

“또 다른 게 되겠지.”

아이가 한동안 물속을 들여다봤다.

“나도 흐르다가 스며드는 거야?”

그 질문은

아이의 입에서 나왔지만

내 목 안에서

울렸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묻는 것들을

내가 묻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신기해하지 않게 되었다.

물고기는 대답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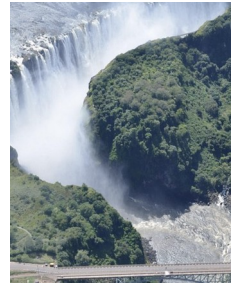
갈대 사이로 사라졌다.

그게 대답이었다.

빅토리아 폭포

— 두려움과 용기에 관한 대화

초당 1000 톤이 떨어지는 소리. 물안개 속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폭포 가장자리에 앉아있었다.



아이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무서워.”

독수리가 폭포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도.”

“독수리가 무서워?”

“떨어지는 건 언제나 무섭지.”

나는 폭포 소리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왜 여기 있어요?”

“무서운 데 있어야

무서운 게 뭔지 알지.”

아이가 한 걸음 앞으로 왔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독수리가 날개를 한 번 폈다.

“강이 되지.

저 아래도 강이야.

떨어진 물이 다시 강이 되는 거야.”

아이가 폭포 아래를 내려다봤다.

“무섭지만 아름답다.”

“그게 용기야.

무섭지 않은 건 용기가 아니야.

무서운데 보는 거.”

독수리가 날아올랐다.

폭포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아이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언제부터 우리가

나란히 서 있게 됐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라이온

— 강함에 관한 대화

새벽 사바나. 수사자가 혼자 앉아 지평선을 보고 있었다.

아이가 속삭였다.

“사자가 제일 무서운 동물이야?”

수사자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사냥을 잘 못 해.”

“진짜?”

“갈기가 너무 크거든. 숨기 어려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왕이에요?”

“왕이라고 한 건 나 아니야.”

아이가 가우뚱했다.

“그럼 누가?”

“보는 사람들이 그랬겠지.

나는 그냥 여기 있었을 뿐인데.”

수사자가 하품을 했다.

크고 깊은 하품이었다.

“강한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가 사냥해서 가져온 걸 먹고

새끼들이 자라는 걸 보고

그게 전부야.”

아이가 말했다.

“그게 강한 거 아니야?”

수사자가 처음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그 눈은

아이와 나를

따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시선이

둘을 하나로 묶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둘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 같았다.

독거미

— 고독에 관한 대화

밤. 나미비아 붉은 모래 위. 손바닥만 한 바분 스파이더가 진동을 느끼며 나왔다.

아이가 내 뒤로 숨었다.

“무서워. 혼자야?”

독거미가 다리로 모래를 두드리며 말했다.

“혼자야.”

“외롭지 않아?”

“외롭다는 게 뭔데?”

아이가 내 손을 꼭 쥐었다.

“같이 있고 싶은데 없는 거.”

독거미가 잠시 멈췄다.

“나는 진동으로 느껴.

바람도, 발걸음도, 모래 움직임도.

혼자지만 다 느껴져.”

나는 쪼그려 앉아 물었다.

“무섭지 않아요? 혼자인 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그게 거미에게 묻는 건지

나에게 묻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처음엔 그랬어.

근데 혼자 있으니까

작은 것도 다 들려.

같이 있을 땐 몰랐던 것들.”

아이가 살며시 앞으로 나왔다.

“그럼 고독이 선물이야?”

독거미가 모래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며 말했다.

“선물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혼자여서 알게 된 건 많아.”

모래가 다시 잔잔해졌다.

아이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다.

나도 그 자리를 바라봤다.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있었지만

언제부터 그 자리가

아이의 자리였는지

내 자리였는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피라미드

— 우주에 관한 대화

기자의 밤. 오리온자리가 피라미드 세 개와 정렬되는 순간.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랑 피라미드가 같은 모양이야.”

피라미드가 말했다.

아니, 돌이 말하는 건지

별이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4500 년 동안 그것만 했어.

저 별을 보는 것.”

“왜요?”

“인간이 처음으로 한 질문이 저거였으니까.

저기도 누가 있을까.

저기서도 우리가 보일까.”

아이가 물었다.

“저 별은 지금도 있어?”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저 빛은 2500 년 전에 출발했어.

지금 별이 어떤지는 몰라.”

아이가 한참 생각했다.

“그럼 내가 지금 보는 게
과거야?”

피라미드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지었어.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질문을 잊지 않으려고.”

아이가 하늘에 손을 뻗었다.

아니면 내가 뻗었는지도
몰랐다.

손끝은 닿지 않았고,
그게 아이의 손이었는지
내 손이었는지는
이제 와서 구분할 수 없었다.
그게 좋았다.

킬리만자로

— 시간과 변화에 관한 대화

적도의 만년설. 사라지고 있는 빙하 앞에서. 빙하가 말했다.



아이가 눈을 손으로 만졌다.

“따뜻한데 눈이 있어.”

빙하가 낮고 오래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 녹고 있어.”

“알아?”

“느껴지지. 매년 조금씩.”

나는 빙하 옆에 앉았다.

“무서워요?”

“처음엔 그랬어.

근데 이제는 그냥

내가 가는 방향이 그런 거구나 싶어.”

아이가 물었다.

“다 녹으면 어떻게 돼?”

“강이 되겠지.

그리고 바다가 되고.

그리고 구름이 되고.

그리고 또 어딘가에 눈이 되겠지.”

아이가 손바닥에 눈을 모았다.

녹기 시작했다.

“내 손에서도 강이 되고 있어.”

그 손이

아이의 손인지

내 손인지,

그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빙하가 말했다.

“그래.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우리 다 그렇게 가는 거야.

무서운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아이가, 혹은 내가,

녹은 물을 땅에 흘렸다.

킬리만자로 땅이 그걸 받았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여행이 아프리카를 찾은 게 아니라

나를 찾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아이가 말했다.

“맙소사. 나를 찾다니.”

균열의 흐름

장	테마	균열의 층위
1. 바오밥나무	외모	화자의 인식 — “낮익다는 느낌”
2. 나미브 사막	자연	기억과 감각 — 잊었던 장소, 낮익은 손의 힘
3. 오카방고 델타	연결·생명	질문의 소유 — “내 목 안에서 울렸다”
4. 빅토리아 폭포	두려움·용기	몸의 위치 — “나란히 서 있게 됐는지”
5. 라이온	강함	타자의 시선 — “따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6. 독거미	고독	서 있는 자리 — “누구의 자리였는지 알 수 없었다”
7. 피라미드	우주	몸(손) 자체 — “누구의 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8. 킬리만자로	시간·변화	완전한 용해 — 마지막 한 줄만 또렷하게 남음